

사 설

분규, 해 넘기지 않길

조계종 분규가 일어난지 한달이 넘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종단이 두 조각난 채 해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물리적 충돌로 불교의 위상을 최악으로 실추시킨 양측은 오호라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

총무원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세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고, 정화회의측은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서로 동상이몽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불자들의 불만은 인내의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종단이 몇몇 소수의 정치승들에게 의해 농단되는 것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는 탄식에서부터, 원로스님과 양심적 중진스님들이 사태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격정이 태산이다. 보다못해 정부까지 나서서 사태의 화합적 해결을 종용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어떻게 자기가 잘났다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는 반정거림마저 들려오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속사회를 지도해야 할 승단이 자기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화합의 압력'을 받는 꼴이 된 것이니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인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화합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측은 눈도 귀도 없다는 듯 여전히 싸움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제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또 한쪽은 종법을 개정해가며 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싸움이 세속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국내의 신문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마라톤 중계하듯 보

고하고, CNN, NHK와 같은 외국의 방송사들도 한국불교의 추태를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있다. 불교가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터에 가장 추악한 싸움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게 되었으니 이는 민망함을 넘어 부처님도 돌아앉을 일이다.

당사자들은 스님을 위장해 불교를 망치려고 하는 '가사입은 외도'들이 아니라면 현 단계에서 무조건 분규를 마감하는 것이 옳다.

마침 법원은 총무원이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지난 11일 이의 있다고 판시하고 정화회의측에 대해 청사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승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더욱 장기간화 된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추태를 계속할 것인가.

대중들이 외면하고 불교가 망하면 그간 총무원 청사를 백번 장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청사를 반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 제도와 종법에 문제가 있다면 종단을 정상화시켜 놓고 개선해도 늦지 않다. 언젠가 처럼 답장을 뚫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 생각만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라고 가르쳐온 사람은 바로 스님들이었다. 부모 자식을 죽인 원수지간도 아는데 도반들끼리 만나 웃으며 화해의 악수만 하면 될 일이다. 이것만이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보여줄 태도다.

벌써 12월도 중순이다. 이제는 지나간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할 시간이다. 스님들은 제발 이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으로 수행자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범불교 대표자회의 발족

중무정상화 지원...분규 뿌리뽑기운동도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단대표자회의(임시명 박광서)가 10일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구성됐다. 이 회의는 6일 범불교도대회에서 사부대중 참여연대회의 구성 결의에 따라 발족했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 중앙총회의장 법등스님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조계종포교사단, 대한불교종교문화진흥회 등 23개 단체 대표자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범불교단대표자회의는 △중무정상화 지원 △대국민 홍보사업 강화 △제2차 범불교도대회 준비 등 조계종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범불교단대표자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청사를 반환하고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정화개혁회의가 자진해산할 때까지 매일 12시 30분 조계사에서 참회정진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 중무행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면서 "종단분규의 근원적 종식을 위해 중장기적인 개혁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불교단대표자회의는 행사 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방문, 정화개혁회의 호법부 정인스님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종단화합 승가회의 발족

'종도 납득할 제3의 길' 모색키로

조계종 사태 해결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종단화합승가회의가 발족된다.

종단화합승가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법장)는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종단사태를 내부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개혁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선거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향후 활동과 관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종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등 5개항을 전제했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공식발족

에 앞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종정월하스님, 원로의원스님, 정화회의, 총무원, 종회,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태해결의 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종단화합승가회의는 원로, 종진, 교구본사주지, 각급 신현단체장 등을 인적 구성원으로 조직을 갖추어 조만간 공식 발족될 계획이다. 10일 기자회견에는 상임조정위원장 진관스님과 사무처장 도관스님이 참가했다.

진관스님은 "사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사태해결방안 찾자"

제가연대 대종도론회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는 1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98년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대종도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산해야 할 분규의 역사'를 주제발제한 이경순씨(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소)는 "4년전 개혁의 의미와 과정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결집할 때"라고 말했다. 윤남진씨(94년 범종추 제2기 간사)는 '98년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주제발제에서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이루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범불교연대회의의 구성과 활동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자 기자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

1천5백여명 동참...정부 책임자 해임 촉구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6일 오후 2시 광화문 네거리 동화빌딩 앞 광장에서 봉행됐다.

총무원, 중앙총회, 불교바로세우기 법재가연대 등으로 구성된 범불교도대회총행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대회장 탄성스님과 공동총행위원장 법등 지선 도법스님, 중앙총회의원 등 2백여 스님과 불교바로세우기 법재가불자연대 공동대표 박광서 임동주씨 등 봉행위원과 신도등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단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한다 등의 대회 봉행 3가지 원칙도 채택했다.

대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경과보고, 대회사, 규탄연설,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이어 참여 스님들이 종단사태에 대한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표현하는 연비의식을 봉행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사용자 원로로 대회를 마감한 참가자들

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 제일은행 본점 앞 광장까지 '식가 모니불' 정근과 '폭력방조 공인력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대회와 관련 또다시 정화회의측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봉행위측의 비폭력원칙에 따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회장소인 광화문 일대와 조계사 인근에는 경찰병력 6천여명이 배치됐다.

임연태 기자



6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법당을 향해 삼귀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

조계사와 무관한 범회 장소제공 양기로

'제2정화불사 성취기원 및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대회'가 6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정화회의 상임위원장 일관스님을 비롯 70여명의 정화회의의원, 조계사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1일 새벽 발생한 방화사건의 경과보고, 조계사 신도대표의 '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글' 낭독, 해인스님(제주 약천

사 회주)의 법어 등의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계사 신도들은 대회에서 △우리의 성소와 성전은 우리가 지킨다 △조계사와 관계없는 모든 집회의 조계사내 개최 거부 △대웅전 방화, 덕왕전 파괴를 막지 못한 죄임을 참회키 위해 정진하기로 하는 한편 △고급승차 타는 스님을 수행자로 여기지 않기로 △성소 유린자들은 승단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웅전을 돌며 관공정군을 했으며, 조계사측은 공권력규탄 범불교도 대회측의 조계사 진입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조계사 장애인복지회'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장애인 1백여명이 일주분과 해탈분, 주차장 퇴출로를 막아 시선을 끌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opia.com)



6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열린 대웅전 방화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성소 파괴와 대웅전 방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삼귀의례를 봉행하고 있다.

천태종 홈페이지 개설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종단 홍보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천태종은 지난 7월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해 최근 1차 작업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천태종 홈페이지는 천태종 총괄소개, 총본사 구인사, 상원원각 대조사, 각종행사와 불사안내, 불자들의 신앙생활, 방명록,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태종은 그래픽 중심으로 꾸며진 현재의 홈페이지 한계에서 벗어나 많은 정보를 알리는 텍스트 자료를 보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소는 http://www.chentaek.or.kr 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성지, 안동 도산서원, 경주 유담정 등 각 종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종교문화 유적지 및 성지를 직접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서 불교, 천주교 등 6대 종단은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다짐 계획이다. 이번 순례에는 각 대학 예비·종교신학자, 각 대학 종교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현대만평

737-8881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 조계종 분규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제언

오늘 우리 교단의 참담한 상황을 초래한 죄인의 입장에서 먼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또 선량한 불자님들과 국민에게 교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서를 빕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법난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다투어 나섰지만, 이웃을 감싸고 교단을 바로 세우는 일, 즉 정의와 명분을 세우거나 구하는 데는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보다 이권이 우선되는 교단의 잘못된 풍토가 날로 악화되면서 급기야는 상대의 잘못을 고친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자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은 일대로 그르치게 되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는 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져 편가르기를 하거나 반목하는 일이 관행처럼 거듭되고 있습니다. 본원과 다름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면서 이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불신을 받는 안타까운 풍토가 조성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정화'라든가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그 뜻마저 오역되거나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단이나 법난의 당사자들을 모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이번의 법난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여 스스로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보다는 교단과 나라를 먼저 염려하는 상식적인 사고를 회복하여 하루 빨리 혼미에 빠진 교단을 구하고 실망과 충격에 휩싸인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아니 법난 당사자들 스스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죄과를 씻는 일에 걸여져 나서야 합니다.

법난과정에서 극도의 반목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교단의 대란을 수습하겠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단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놓고서도 여전히 이해를 따지거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화염병과 각목을 휘두른다면, 우리 교단은 불자는 물론이요 국민으로 부터도 버림받을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소임을 맡고자 하는 이는 그 결정권을 교단 구성원들의 신성한 신념에 넘기고 더 이상의 속기에 찌든 아집을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단의 현상향을 초래한 책임의 일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만, 우리 교단이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에 교단이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3주간 합의안 재수용

첫째,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주선으로 마련되었던 수습안을 정화개혁회의와 중앙총회 양측이 다시 수용하여 법난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수습안을 받아들이는데 손익을 따지지 말고, 교단을 혼란케한 잘못을 뉘우치는 입장에서 공심을 가지고 교단의 위상 재정립을 제일 과제로 삼아 총무원장 선거를 조속히 치르자는 것입니다.

향후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출

둘째,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폐단을 막기 위하여 총무원장을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선출,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중징예회가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구벌로 인한 소요를 막고 교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단내 재정정보를 통제 및 재정의 공개적 운영

셋째, 각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각종 법인체나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단체 중 삼삼십이 공개되지 않거나 재정의 흐름이 통제되지 않는 곳은 조계종뿐이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여 교단내재정을 통제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근원인 '어두운 돈'을 본래의 '정정하고 밝은 돈'으로 환원시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교단도 재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의 공개와 투명한 운용으로 교단이 맑아질 때 우리 교단은 국민정서를 순화시키고, 국민의 귀의처가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안중 첫 번째 안은 곧 이행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안은 시일을 갖고 기본틀을 기다려야 할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단사태의 서비 당사자들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원만한 합의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원로회의의 인준과 중징예회의의 윤락을 얻어 시행한다면, 교단내에 다시는 이번 법난과 같은 불사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법난으로 부처님은 물론이요 불자와 국민, 국가와 전 인류에게 지은 막대한 죄업을 씻고, 우체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극한 허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하여 교단안정의 초석을 든든히 하는데 모든 종도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단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겠다는 저의 사심없는 제언에 대해 전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무손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1998년) 12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설 조 화 남